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모방의 의미 탐색

- 데리다(Derrida)의 차연(Différance)을 중심으로 -

이재정*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제언 |
| II. 데리다의 차연 | 참고문헌 |
| III. 차연과 교육과정 속 '모방' | Abstract |
| IV. 차연에 기반한 '모방'의 의미 | |

I. 서론

현대 사회는 기술적, 문화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또한 본질과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가 아닌,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유기적 구조로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주재홍, 2020). 특히, 기존의 계몽주의적 교육관에 기반한 교육과정에 대한 본질주의적 패러다임은 오늘날 다원성과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도 고정된 의미 구조를 해체하고 유동적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탐색해야 하는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후기구조주의는 교육과정의 이론적 지평을 제공한다. 후기구조주의는 고정되어 있는 의미를 거부하며, 담론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지연된다는 인식론적 전환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내재된 권력과 재현, 정체성의 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하며 유동적인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후기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데리다(Derrida)의 차연(différance)은 기존 교육의 본질주의적 의미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케 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미의 지연과 차이의 구조를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철학적 도구가 된다(Derrida, 1967, 1976). 데리다는 의미란 고정적 기표와의 대응 속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연기(deferment)와 차이(difference)의 사슬 속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과정의 텍스트성(textuality)을 강조하며, 학습자의 주체적 해석과 실천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해석학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김예진, 2021). 이와 관련하여 Bojesen(2021)은 데리다의 교육철학이 교육의 고정된 목표 설정을 문제시하며 해석과 모순의 인식을 강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Irwin(2022)은 교육연구의 방

* 진주교육대학교 조교수, smljj@cue.ac.kr

법론적 전환 가능성으로서 해석 중심의 교과교육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교육학 연구에 미치는 이론적인 의미를 조명하였다. 또한 데리다의 철학을 기반으로 교과교육 그리고 무용교육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김예진(2021)은 데리다의 ‘차연’을 기반으로 읽기 교육에서의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변민지(2024)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관점으로 현대 춤을 분석하여 안무자의 다양한 사유의 방식과 해석의 층위를 열어주는 전략으로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화도(2012)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데리다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과교육과 일반, 특히 표현활동에서 차연적 존재로서 교육과정의 다층성과 탈중심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박병준, 이유리(2013)는 리코르의 삼중 미메시스 이론을 기반으로 무용교육에서 ‘모방’을 단순한 반복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과 해석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의미로서 재해석하며 ‘모방’이 고정된 재현이 아니라 ‘차연’을 통한 생성적 활동으로 확장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철학적 기반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서상 제시된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동일한 개념이 연구자 또는 실천 현장에서 상이하게 해석되며, 그로 인해 실행의 일관성과 교육적 효과가 저해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윤기준, 2023). 특히 유정애(2022)는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표면적 이해 또는 오개념에 기반한 실천이 나타나고 있음을 비판하며, 개념 간 관계와 그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은 신체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하며, 그 중에서도 ‘모방’은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다(장경환, 박규빈, 2023; 장병권의, 2017).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모방’은 주로 교사나 동료의 동작을 재현하는 기계적 반복의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신체적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주체적 활동으로서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이재정, 2024; 황경숙, 2004).

이에 본 연구는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모방표현’을 탐색함으로써, 그 의미를 창의적 표현의 가능성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모방을 단순한 재현 행위가 아닌, 차이의 생성과 의미의 지연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표현 활동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 해석과 창의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 해석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체육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철학적 기반의 실천적 재구조화를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해석학(hermeneutics)과 교육과정 이론의 해석적 전통에 기반한 질적 문헌연구로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바탕으로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모방 표현’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탐색 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의 문서를 ‘텍스트(text)’로 보고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교육과정 해석 접근(curriculum hermeneutics)을 시도하였다(Pinar, 2003).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신체 활동 예시를 중심으로 기호와 의미, 그리고 신체 표현 활동에 대한 분석하고 교육과정 속 표현 영역의 ‘모방’의 의미를 데리다의 차연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탐색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철학적 해석학을 기반으로 한 질적 문헌분석이기에 실천적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I. 데리다(Derrida)의 차연(Différance)

데리다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처음 사용한 *Destruction*을 프랑스어인 *deconstruction*으로 차용하면서 탈구축(*deconstruction*), 즉 해체라는 개념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박수경, 2012). 이 해체라는 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 개척되어 이론화되었는데, 데리다는 텍스트의 해체, 즉 텍스트(*text*) 자체가 지닌 의미의 불확정성에 집중하거나 텍스트가 드러내는 강력한 사고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사고를 철저하게 파헤침으로 그것을 해체하는 데 집중한다(김세영, 정광순, 2013; 주재홍, 2020). 이러한 텍스트의 전략적 핵심은 바로 차연(*différance*)이다. 차연은 지금 여기, 즉 공간과 시간성에 따라 기호의 의미도 공간적 차이에 의해 달라지며 끊임없이 연기되고 있기에 현존하는 것이 될 수 없는 존재로서 불완전한 것임을 의미한다. 즉, 절대적이고 순수한 의미와 초월적 기의(超越的 記意), 영원불변의 의미란 없다(김세영, 정광순, 2013). 그렇기에 데리다의 차이란 항상 진행 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자신의 차이를 만들어 내듯이 차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데리다는 이런 차이를 항상 진행중에 있으며 완전한 차이, 완전한 의미는 영원히 연기될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박영욱, 2009). 데리다는 차연과 차이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다르게 설명하며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서 차연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행형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데리다의 차연 개념이 단지 언어학적 담론을 넘어서, 미학적·철학적 의미 구성의 구조적 역설을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강조한다(박영욱, 2009). 그는 예술작품의 의미 역시 내부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을 나누는 틀 자체’, 즉 경계와 조건을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 또한 작품 내부의 본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계와 틈새(에르곤(*ergon*)과 페레르곤(*parergon*))으로서 일종의 안과 밖의 경계), 그리고 그 주변부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효과로 이해된다. 아름다움의 실체가 ‘허구적 테두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각적 형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는 곧 완결되지 않은, 항상 열려 있는 의미의 지평을 보여준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예술작품은 본질이 아니라 지연되고 반복되며 차이를 생성하는 열린 구조로서, 기호의 공허함이 오히려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생성한다. 이처럼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은 단순한 의미의 지연이나 변형을 넘어서, 기호 자체의 비결정성과 열린 생성성을 드러내는 철학적 개념이다. 이는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성하는지를 성찰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지각과 표현 방식이 지닌 표상주의적 한계를 해체하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표상(*representation*)은 우리가 세계를 분류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식의 도식으로서, 언어뿐 아니라 신체 움직임, 감각, 공간 인식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상은 실재(*reality*)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존재의 고유성, 감각의 차이, 의미의 생성성을 고정된 도식으로 환원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들뢰즈(*Deleuze*, 1994)는 이를 ‘표상주의’라고 명명하며, 차이 자체를 존재의 본질로 삼지 않고, 중심이나 원형에 종속시키는 사고방식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데리다 또한 표상의 구조가 갖는 본질주의적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술작품에서조차 우리가 아름다움을 감지한다고 믿는 근거는 본질이 아니라, 안과 밖을 나누는 틀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효과라고 보았다(박영욱, 2009). 이러한 미적 인식은 실체가 아니라 구조적 조건이며,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실제라기보다 기호의 틈에서 발생하는 허구적 질서일 뿐이다. 즉, 아름다움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미의 경험 자

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생성적인 의미의 구조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차연의 논리는 신체 움직임과 모방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도 확장된다. 교육현장에서 모방은 흔히 기존의 동작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훈련으로 이해되지만,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모방은 언제나 차이를 내포한 재현이며, 동일성의 반복이 아닌 차이의 생성으로 보아야 한다. 즉, 모방은 표상을 통해 이미 규정된 의미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기의 사이의 미끄러짐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신체적 실천이다. 예컨대, 학생이 교사의 동작을 모방한다고 할 때, 그 동작은 결코 동일한 재현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신체 감각, 경험, 시간성에 따라 구성된 ‘다른’ 움직임이 된다. 이는 차연의 시간적 지연과 공간적 차이를 통해 ‘모방’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표현을 생성하는 해석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방은 본래부터 표상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구조는 고정된 의미의 전달체가 아닌 기호의 공허함과 차이를 드러내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데리다의 관점에서 모방은 미완의 형식 속에서 끝없이 지연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차이를 생산해내는 열린 실천이며, 이는 신체 표현 활동이 본질적으로 표상되지 않는 감각의 운동, 생성의 리듬, 주체의 해석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오늘날 체육교육이 모방을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생성성을 촉진하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강하게 제안한다. 교육은 이제 재현의 공간이 아니라, 차연적 움직임을 통한 의미 생성의 공간, 곧 신체가 사고하고 해석하는 실천의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III. 차연과 교육과정 속 ‘모방표현’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신체 표현활동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촉진하는 핵심 영역이며, 이 중 “모방 표현”은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 인물, 자연 현상 등을 모방하여 표현하는 활동(교육부, 2022, p.116)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모방은 오랫동안 표현 활동의 기초적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추상 표현, 리듬 표현과 함께 중요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모방은 정형화된 동작의 재현이나 기술 습득 중심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는 표현 활동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약해왔다. 이러한 해석의 한계를 넘어, 데리다의 차연 개념은 모방을 고정된 원형의 반복이 아닌, 지연과 차이 속에서 의미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창조적 실천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철학적 틀을 제공한다. 즉, 동일한 동작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학습자의 신체적 감각과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모방은, 정태적 재현이 아니라 의미 생성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차연과 기호의 재해석

데리다의 차연은 의미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차이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Derrida, 1967). 이는 소쉬르(Saussure)의 기호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통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소쉬르(Saussure)는 언어를 기호(sign)로 정의하고, 이 기호를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결합으로 파악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본

질적으로 자의적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정되어 특정한 의미를 형성한다(김예진, 2020). 예를 들어, ‘○’라는 기호는 기표(○)와 그 의미인 기의(‘동그라미’)의 결합을 통해 고정된 기호로 인식되며, 이 결합을 통해 기호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본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관계, 즉 기호의 의미가 고정적으로 확정된다는 개념을 부정한다. 그는 기호의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양한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연기되고 변형된다고 주장한다(Derrida, 1976). 데리다에 따르면 하나의 기의는 하나의 기표에 단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표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고 변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호의 의미는 한 번에 발현되지 않고, 다양한 맥락과 인식의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데리다는 이러한 의미 생성의 과정을 차연이라 부르며, 이는 의미가 끊임없이 지연되고 차이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은 이러한 차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텍스트는 단순히 문자의 집합이나 서술적인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어지는 모든 대상을 읽어내는 과정을 포괄한다(김예진, 2020). 즉, 텍스트는 경험, 사물, 현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기표와 기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장(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데리다의 관점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신체 표현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신체 표현활동에서 모방은 전통적으로 원형의 재현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적용하면, 모방은 단순한 재현의 행위가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현상 표현하기’와 같은 활동에서 학생들이 ‘바람’을 모방할 때, 그 ‘바람’의 의미는 학생 개인의 경험, 상상력, 그리고 그 순간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모방은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기호의 의미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차연적 관점에서 모방은 하나의 기의가 고정된 기표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표를 통해 여러 차원의 의미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바람’을 표현하는 활동에서도 학생마다 그 ‘바람’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 정서, 감각 등을 바탕으로 그 기호를 해석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차연에 따르면 이러한 모방은 고정된 원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이를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변형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기호의 의미는 학습자의 인식과 표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며, 이로써 기호는 정적인 실체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으로 존재한다.

데리다의 차연과 텍스트 개념을 통해 신체 표현활동에서 모방의 의미를 고찰하면, 모방은 학습자가 자신의 신체를 통해 다양한 기호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적 행위로 재해석된다. 이는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모방이 단순한 기술 습득의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교육적 활동을 시사한다.

따라서 데리다의 차연적 기호 개념은 체육 교육에서 모방의 역할을 재고할 수 있는 철학적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방을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체육 교육에서 모방을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학습 행위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2.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모방: 자연의 관점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과정평가원, 2022, p. 6). 표현 영역은 운동, 스포츠와 함께 내용 체계를 이루는데, ‘모방’은 3-4학년 군에서 제시되어 있다. 3-4학년군의 표현 영역의 성취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수준 중 ‘모방’표현 활동에 대한 성취수준은 [4체 03-03]으로 해설서에는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 인물, 자연 현상 등의 모양과 움직임을 모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그 특징을 살려 표현하도록 한다.”(교육과정평가원, 2022, p15)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는 1)표현 활동의 의미와 움직임 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움직임 요소에 따른 표현 기술을 파악하고, 3)모방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4)발표함으로써 표현 활동의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표현의 사례로 직·간접적 학습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모방’ 표현은 모방의 대상의 움직임을 충분히 1)관찰, 2)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과 자연현상과 주변환경에 대한 활동 예시를 통해 ‘생태전환적 관점’에서의 환경적 이해를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22, pp. 15-16).

<표 1>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 영역 3, 4학년군 성취수준

성취수준	
[4체03-01]	표현 활동의 의미와 기본 움직임 기술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체03-03]	움직임 요소에 따른 기본 움직임 기술의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시도한다.
[4체03-03]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이나 자연을 모방하여 표현한다.
[4체03-04]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하여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한다.
[4체03-05]	기본 움직임 기술을 리듬에 맞춰 표현한다.
[4체03-06]	기본 움직임 기술을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4체03-07]	움직임의 심미적 표현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을 나타낸다.

교육과정평가원(2022).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p. 14) 참조.

이는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표현영역에서의 ‘모방’은 단지 기술의 반복이 아니라 자연현상, 주변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적 인식과 함께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한 방식의 탐색과 발표를 통한 타인과의 공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취수준에서 자연현상, 사물, 인물을 모방하되,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원형의 재현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학습자의 감각과 경험, 해석이 더해지는 과정으로서 이는 데리다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사이의 간극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자연현상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학습자의 다른 감각과 배경, 신체 경험을 통해서 차이를 생성하며 이는 지연된 채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모방 표현은 다양한 신체활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표 2>에서 제시된 예시들은 사물, 인물, 자연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교육과정평가원, 2022). 이러한 모방 표현 중

하나인 ‘자연현상 표현하기’에서, 학생들이 ‘바람’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해보면, 그 바람은 차연의 관점에서 다양한 텍스트적 맥락에 따라 다채로운 의미로 드러날 수 있다.

〈표 2〉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영역 모방표현의 신체활동 예시

초등 3~4학년군	
세부영역	기본움직임의 표현 방법
모방 표현	신체활동 예시
	사물표현, 인물표현, 자연현상 표현하기 등

교육과정평가원(2022).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p. 17) 참조.

‘자연 현상 표현하기’ 활동에서 ‘바람’을 모방하는 활동을 살펴보면, 이 기호는 차연의 이론에 따라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차이를 통해 나타난다. 학생들은 각자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바람’을 다르게 인식하고 표현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그들 각각의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엄마와 손잡고 꽃을 보러 공원에서 만난 봄의 부드러운 바람”을 떠올릴 수 있고, 또 다른 학생은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아가 잃어버린 바람”을 기억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호인 ‘바람’이 학습자의 경험에 의해 발현된 것이며, 동일한 ‘바람’이라는 기호가 지닌 무수한 의미의 스펙트럼 중 하나를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데리다의 차연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차연은 의미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차이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Derrida, 1967). 즉, 기호인 ‘바람’은 고정된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식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고 연기되는 것이다. 이때 모방은 학생들이 ‘바람’이라는 기호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경험과 맥락에 따라 ‘바람’의 특정한 측면을 드러내고 재구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에게 ‘바람’은 “아침에 나뭇잎을 흔드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다른 학생에게는 “폭풍우 속에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식은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과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이는 데리다가 제시하는 차연의 핵심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통해 발현되고 연기된다는 것이다. 즉, ‘바람’이라는 기호의 의미는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인식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변형한다. 이러한 차연적 모방의 맥락에서, 체육 교육에서의 모방은 고정된 원형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모방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기호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창의적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습자가 ‘바람’이라는 기호를 통해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방은 학습자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교육적 행위로서, 그 의미는 학생 개인의 맥락적 경험과 차이에 의해 구성되는 역동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모방’의 내용을 데리다의 차연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모방’에 대한 데리다의 차연의 의미

교육과정에서 ‘모방’	데리다의 차연
사물, 자연, 인물 등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표현’	고정된 것은 없으며, 의미를 지연시키는 해석적 생산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학습자의 주체성을 기반한 ‘차이’의 인정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과 해석	‘타자성’의 교육적 통합으로서 자연과 환경
발표	지연된 생산과 해석의 개방적 완성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모방’은 1)다양한 표현 사례의 학습, 2)자유로운 분위기, 3)생태전환적 관점, 4)관찰, 5)발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모방’이 즉각적인 의미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과정이 아닌 탐색과 재해석의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에 의해 끊임없이 지연되고 재구성되는 ‘움직이는 텍스트’로서 학습 상황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IV. 차연에 기반한 표현영역에서 ‘모방’의 의미

데리다의 관점은 ‘모방’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모방이 주로 단일한 원형의 재현이나 복제의 형태로 이해되어 왔다(Gallagher, 2008). 그러나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적용하면 모방은 단순히 원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방이 정해진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기존의 지식을 자기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해석이 ‘모방’을 전적으로 창조적이고 변형적인 행위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방은 원형과 새로운 해석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Peters, 1966).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모방은 단순한 모사나 복제가 아닌, 학습자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다층적인 학습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연현상 표현하기’와 같은 활동은 차연적 모방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학생들이 ‘바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바람은 단순히 교사의 시범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데리다는 그의 저서 『글쓰기와 차이, *Writing and Difference*』(1976)에서 특정 대상의 본질은 고정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연기의 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김웅권, 1992: Derrida, 1978). 이 관점에서 ‘바람’이라는 기호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예를 들어 ‘봄날의 부드러운 바람’ 또는 ‘폭풍우의 거센 바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해석된다. 이때 ‘바람’의 의미는 학생들의 주체적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롭게 생성된다.

차연적 모방의 이러한 접근은 체육 교육에서 모방을 학생들의 주체적 경험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교육적 실천으로 재정의한다. 데리다의 차연은 기호의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연기되고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철학의 주변, *Margins of Philosophy*』(1982)에서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이는 그 기호가 끊임없이 새로운 맥락 속

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황중연, 1999: Derrida, 1982).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의 모방 활동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경험과 인식을 통해 기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방은 교사의 동작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창조적 행위로서, 학생들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체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탐색하도록 지원한다.

1. 주체적 의미 생성 과정으로서 ‘모방’

‘신체 표현활동의 모방에 대한 차연적 접근’은 체육 교육에서 모방을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의미 생성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데리다의 차연 개념은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체적 경험과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된다고 주장한다(Derrida, 1993). 『마르크스의 유령들, *Specters of Marx*』(1993)에서 데리다는 의미의 생성이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한다. 이는 신체 표현활동에서의 모방이 단순히 과거의 동작을 그대로 현재에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신체 표현활동에서 모방은 학생들이 특정 동작이나 표현을 단순히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이 갖는 의미를 자신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데리다의 차연이 강조하는 의미의 유동성과 연관된다. 즉, 학생들이 모방을 통해 표현하는 동작은 고정된 원형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기표와 기의의 관계 속에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들의 신체적 경험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이를 통해 모방은 정적인 재현이 아닌 역동적인 창조 행위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차연적 모방은 신체 표현활동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적 실천이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적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재구성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발전시킨다. 이는 모방을 단순한 기술 습득의 차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확장한다. 데리다의 차연을 통해 신체 표현활동의 모방을 바라보면, 이는 고정된 형식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적 표현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방은 학습자들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체육 교육에서 신체 표현의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재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신체 표현활동에 적용해 본다면, 자연현상에 대한 표현 활동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신체적 경험과 인식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창의적 행위로 재해석될 수 있다. ‘바다’를 표현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정해진 규칙이나 방식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각자의 독특한 몸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이는 모방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차연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다층적인 의미 생산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바다를 잔잔한 움직임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각적 인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따라, 그리고 학생의 내면적 상태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계속해서 변형된다. 이는 모방이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매 순간 재구성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행위라는 데리다의 차연 개념

을 반영한다. 차연적 모방에서 신체 표현활동은 고정된 원형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주체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변형하는 장(場)으로 작용한다. ‘바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 자체의 고정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바람’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낸다. 이는 데리다가 주장한 바와 같이, 대상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미는 항상 다른 요소들과의 차이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드러난다는 철학적 통찰을 반영한다(Derrida, 1976). 따라서 모방은 학습자가 자신의 신체를 통해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호를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재구성된다.

2. 새로운 의미의 창조적 과정으로서 ‘모방’

차연적 모방은 신체 표현활동에서 학습자의 주체적 경험과 해석을 중심에 둔다. 이는 ‘자연현상 표현하기’와 같은 활동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모방은 단순히 교사가 제시하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맥락을 기반으로 그 동작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어떤 대상의 본질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상은 언제나 다른 것들과의 차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발현된다(Derrida, 1976). 이 점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모방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기호의 일부분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차연적 모방은 신체 표현활동에서 학습자의 주체적 경험과 해석을 중심에 둔다. 이는 ‘자연현상 표현하기’와 같은 활동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모방은 단순히 교사가 제시하는 동작을 기계적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맥락을 기반으로 그 동작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어떤 대상의 본질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상은 언제나 다른 것들과의 차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발현된다(Derrida, 1976). 이 점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모방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기호의 일부분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다’라는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이때 학생들은 ‘바다’를 단순히 정해진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경험과 상상력에 따라 그 의미를 다채롭게 구현한다. 어떤 학생은 ‘바다’를 잔잔한 파도와 고요한 수면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은 거센 파도와 폭풍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처럼 ‘바다’에 대한 표현은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로 환원되지 않으며, 학습자의 삶의 경험,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재의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되고 새롭게 창조된다.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 개념은 이러한 역동성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철학적 틀을 제공한다. 그는 모든 기호의 의미는 고정되거나 불변하지 않으며, 차이(difference)와 지연(deferment)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바다’라는 기호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맥락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는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유동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차연적 모방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신체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끊임없이 재구성할 수 있는 교육적 잠재력을 지닌다.

신체 표현활동은 특히 이러한 차연적 모방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그 기초에는 기본움직임

(Fundamental Movement Skills, FMS)이 자리 잡고 있다. FMS는 달리기, 뛰기, 잡기, 던지기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 포함하며, 이는 신체 표현활동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본움직임은 단순히 기술적인 습득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신체를 통해 다양한 기호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모방을 통한 신체적 표현이 고정된 의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FMS를 학습하는 과정을 예로, ‘뛰기’라는 기본움직임을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처음에는 교사의 시범을 보고 ‘뛰기’ 동작을 모방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의 신체적 경험과 감각을 통해 이 움직임을 재해석하고 변형시킨다. 어떤 학생은 잔디밭에서 느낀 탄력적인 느낌을 반영하여 부드럽게 뛸 수 있으며, 또 다른 학생은 바람을 가르며 속도감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역동적으로 뛸 수 있다. 이는 ‘뛰기’라는 움직임이 단일하고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다채롭게 변형되는 차연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차연적 모방을 통한 신체 표현활동은 고정된 의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신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FMS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교육적 잠재력을 지닌다. 데리다의 차연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신체 표현활동은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적 행위로서, 학습자들의 성장과 자기 이해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토대로,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내 ‘모방표현’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탐색하고, 그것이 단순 재현(representation)의 수준을 넘어서는 생성적 교육 활동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모방은 교사나 동료의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적 재현이 아니라, 학습자의 감각적 경험과 주제적 해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와 표현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유동적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데리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미는 고정된 기표의 재현이 아니라 무한히 지연되고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된다는 견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Derrida, 1967).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 영역에서 ‘모방’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된 원형을 해체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모방’이다. 전통적으로 교사의 동작이나 고정된 원형을 그대로 반복하는 행위로서의 ‘모방’에서 벗어나 차연 개념에 기반할 때 신체 표현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신체적 조건과 맥락, 문화, 일상적 경험에 따라 동일한 동작도 다르게 해석되고 수행된다는 점은, ‘모방’이 ‘차이의 표현’으로서 기능하며 이는 신체 표현 활동에서 ‘정답이 있는 표현’에서 벗어나, ‘열림(open-endedness)’을 지향하는 철학적 기초가 된다.

둘째, 의미의 생성과 지연을 통한 주제적 표현으로서 ‘모방’이다. 차연은 단지 차이를 전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가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연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체 표현활동에서 ‘모방’은 어떤 ‘정확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많은 경험과 무한의 해석 속에서 의미가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의미 구성의 유예적 과정으로 재정

의할 수 있으며,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의 존재론적 탐색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창조적 주체 형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모방’이다. 차연은 단지 차이를 전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가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학습자의 경험과 해석의 과정 즉,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 속에서 창조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미 구성의 유예적 과정으로서 ‘모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며 생성될 수 있는 주체적 교육의 장이 된다.

본 연구는 데리다의 철학 개념을 교육과정 문서의 개념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철학적 이론과 체육 교육 실천 간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석학과 후기구조주의 담론은 교육과정의 용어적, 구조적 모호성이 반드시 문제가 있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교사와 학생의 해석을 통해 살아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메를로-퐁티의 심신관을 바탕으로 신체와 의미의 관계를 해석한 한준상(2024)의 논의와도 통하며, 모방 활동은 표층적 반복이 아닌, 신체를 통한 새로운 의미 구성의 장으로서 교육현장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다만, 초등 체육 교과서나 실제 수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차연 개념을 기반으로 모방 표현을 유형화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모방 활동을 관찰하고, 학생의 경험, 해석, 표현의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방 활동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밝히고, 창의적이고 해석적인 체육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영옥(2009). *데리다&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김영사.
- Derrida, J. (1992). *글쓰기와 차이*. (김웅권 역). 인간사랑. (원저출판 1967).
- Derrida, J. (1999). *철학의 주변*. (황종연 역). 문학과지성사. (원저출판 1972).
- Derrida, J. (1967). *Of Grammatolog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rrida, J. (1976). *Writing and Differ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rrida, J. (1997).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Fordham University Press.
- 구희영, 이미송(2015). 인문, 사회과학편: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사회학적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4(2), 25-40.
- 김문선(2024). 화타오금희(華佗五禽戲)를 활용한 모방 표현 수업 프로그램 연구. *무용역사기록학(SDDH)*, 72, 35-68.
- 김예진(2021). 차연적 읽기의 교육적 접근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 32(1), 343-356.
- 김재운(2014). 초등체육수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모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9(1), 1-14.
- 박수경(2012). 해체주의와 양식의 해체에 관한 연구: 현대미술에 나타난 개념미술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에 나타난 개념미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5, 313-344.
- 변민지(2024).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관점으로 바라본 현대춤 작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유정애(2022).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담론의 분석 및 비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9(1), 1-28.
- 윤기준(2023). 교사의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지원 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6(2), 107-124.
- 이경하(2003). *데리다의 '차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병준, 이유리(2013). Mimesis 이론 기반의 무용교육방법론 탐색 - Paul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 *무용예술학연구*, 45(6), 81-102.
- 이재정(2021). 무용교육에서 표상의 의미 탐색. *인문사회* 21, 12(6), 1881-1892.
- 이재정(2024). 브루너(J. Bruner)의 표상체계 관점으로 본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신체 표현활동' 의미. *한국체육과학회지*, 33(3), 598-610.
- 이화도(2012). 데리다 해체철학의 유아 교육적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53-72.
- 장경환, 박규빈(2023).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실천에 관한 체계적 문헌 분석. *체육과학연구*, 34(4), 717-727.
- 장병권, 채창목, 김영식(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초등체육교육학 연구 동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4), 165-179.
- 정옥희(2012). 시각적 재현과 주체, 언어와의 관계: 후기구조주의 해석학 이론의 미술교육에서의 함의. *미술과 교육*, 13(2), 87-112.
- 주재홍(2020). 교육과정연구에서의 해체적 방법론의 적용과 그 가능성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

- 연구, 20(6), 551-579.
- 한준상.(2024).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관련 주요 용어 이해를 위한 현상학적 해석학 관점의 고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32(1), 13-33.
- 황경숙(2004). 초등 무용교육의 철학적 가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513-527.
- Anttila, E., Martin, R., & Nielsen, C. S. (2019). Performing difference in/through dance: The significance of dialogical, or third spaces in creating conditions for learning and living together.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31, 209-216.
- Bojesen, E. (2021). Contradictions in educational thought and practice: Derrida, philosophy, and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40(2), 165-182.
- Mansfield, J. (2005). Difference, deconstruction, undecidability: a Derridean interpretation. ACCESS: Critical Perspectives on Communication. *Cultural & Policy Studies*, 24(1/2), 33-43.
- Engdahl, C., Lundvall, S., & Barker, D. (2024). Dancing as searching with Deleuze—a study of what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express and experience in creative dance lesson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25(4), 375-390.
- Hutchinson A. C. (2005). If Derrida Had Played Football. *German Law Journal*, 6(1): 53-63. <doi: 10.1017/S2071832200013468>
- Iacob, I. (2022). Learning to Exercise by Imitation in Children Aged 6-7. *Bulletin of the “Transilvania” University of Braşov*, 15(64). <https://doi.org/10.31926/but.shk.2022.15.64.1.9>
- Isidori, E. (2010). Deconstructing Sport: When Philosophy and Education Meet in Derrida’s Thought. *Physical Culture and Sport. Studies and Research*, 48(1), 15-20. <https://doi.org/10.2478/v10141-010-0002-4>
- Irwin, J. (2022). Derrida and education research: an introduction. In *Social Theory and Education Research* (pp. 221-235). Routledge.
- Peters, R. S. (1966). *Ethics and Education*. George Allen & Unwin.
- Pinar, W. F. (Ed.). (2003). *International handbook of curriculum research* (No. 20547). Mahwah: L. Erlbaum Associates.
- Sainchuk, M. M., Petrachkov, O., Sainchuk, A., & Verbyn, N. B. (2022). The Crisis of Physical Education in the Discourse of Mimicry: Ukrainian and Global Contexts. *Physical Culture and Sport. Studies and Research*, 93(1), 7-16. <https://doi.org/10.2478/pcssr-2022-0006>
- Rhoades, J. L., & Hopper, T. (2018). Utilizing Student Socio-coordinated Mimicry: Complex Movement Conversations in Physical Education. *Quest*, 70(3), 321-337. <https://doi.org/10.1080/00336297.2017.1373683>
- 교육과정평가원(2022). 2022 개정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문서]

논문투고일 2025. 05. 15.
 심사일 2025. 05. 21.
 심사완료일 2025. 06. 23.

Exploring the Meaning of Mimetic Expression in the 2022 Revised Korea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 Focusing on Derrida’s Concept of Différance –

Lee, Jaejung

Assistant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offers a re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imitation within the expressive domain of the 2022 revised Korea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by utilising Derrida’s concept of différance. The concept of imitation is proposed not as the reproduction of a fixed archetype, but as a deferred and differential process of meaning-making.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imitation is commonly regarded as the repetition of a teacher’s movements or the acquisition of skills. However, this approach has frequently been critiqued for its potential to restrict learner subjectivity and creativity. The present study adopts a novel approach by treating the curriculum as an interpretable text, thereby facilitating an analysis of expressive activity and imitation through the lens of différ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imitation emerges as a generative, interpretive activity shaped by the learner’s bodily experience, perception, and context. This standpoint emphasises expressive activity as a dynamic site of meaning, rather than merely technical transmission, thus offering novel pedagogical possibilities for fostering subjectivity and creativity in physical education.

Keywords: Différance(차연), Mimetic expression(모방 표현), Physical expression activity(신체 표현 활동),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체육과 교육과정), Post structuralist dance education(후기 구조주의 무용교육)